

“도쿄 갑니다”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기쁨의 눈물

여자배구 공격수·세터 ‘찰떡 궁합’ 한국, 난적 태국에 3-0 완승 이끌어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쾌거

스물 네살 쥐띠 쌍둥이 배구 스타 이재영(흥국생명)과 이다영(현대건설)이 힘을 모아 한국 여자배구의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둘은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지난 12일 태국 나콘랏차시마 꼬랏차차이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대륙예선 결승전에서 난적 태국을 세트스코어 3-0(25-22 25-20 25-20)으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팀만이 얻는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이다영은 주전 세터로 공격을 조율했고, 레프트 이재영은 김연경(22점-터키 엑사시바시) 다음으로 많은 18점을 올렸다.

팀 내 입지만큼이나 부담도 컸다.

경기 뒤 공동취재단과 만난 이다영은 “부담감이 너무 컸고 긴장도 많이 했다”며 “내가 경험도 부족하고 경기 운영도 미숙해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님이 주문을 많이 하셨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표현도 많이 하셨다”고 했다.

김연경도 세터 이다영을 믿고, 격려했다. 이다영은 “내가 많이 흔들렸는데, 언니가 ‘괜찮다, 괜찮다’고 달래주셨다. 연경 언니가 옆에서 ‘고생했다. 도쿄 가서, 수고했다’고 말해주셨다”고 전했다.

김연경과 함께 팀의 주포 역할을 한 이재영은 “자신 있게 경기했다. 경기가 끝나니까 후련하다”고 했다.

사실 이재영은 허리와 발목 부상을 안고 대회를 치렀다. 김연경(북극), 김희진(중아리)만큼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상황에서 코트를 지켰다.

이재영은 “부상 선수가 많아서 훈련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다들 참으면서 열심히 했다”며 “어제 준결승에서 연경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 꼭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따고 싶었고, 목표를 달성한 게 좋아서 다 같이 울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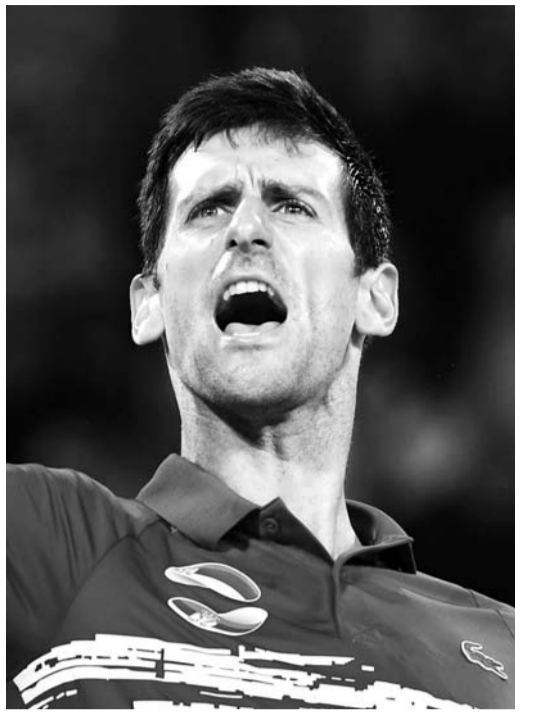
이제 이재영과 이다영은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를 준비한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재영도, 처음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다영도 의욕을 키운다.

이다영은 “올림픽 본선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다짐했다. 이재영은 “꼭 메달을 따고 싶다. 연경 언니와 함께 뽀 때 올림픽 메달에 도전해보겠다”고 했다.



스물네살 쥐띠 쌍둥이 배구스타 이다영(왼쪽)과 이재영.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컵 대회 스페인과의 결승(2단 1복식) 두 번째 단식 경기에 출전,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을 2-0으로 몰리친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1·2위 시즌 첫 대결 조코비치가 먼저 웃었다

ATP컵 대회 나달에 2-0 완승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과 시즌 첫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세르비아에 남자프로테니스(ATP) 컵 초대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다.

조코비치는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TP컵 대회 마지막 날 스페인과 결승(2단 1복식) 두 번째 단식 경기에 출전, 나달을 2-0(6-2 7-6(7-4))으로 몰리쳤다.

1단식에서 스페인의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구(10위)이 세르비아의 두산 라요비치(34위)를 2-0(7-5 6-1)으로 꺾었기 때문에 만일 조코비치가 나달에게 졌더라면 ATP컵 우승은 스페인 차지가 되는 상황이었다.

세르비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조코비치는 이어 열린 마지막 복식에서 빅토르 트로이츠키와 한 조로 출전했다.

스페인의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펠리시아노 로페스 조를 2-0(6-3 6-4)으로 꺾은 조코비치-트로이츠키 조는 동료 세르비아 선수들과 함께 올해 창설된 ATP컵 우승을 기뻐했다.

올해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 퍼스 등 3개 도시에서 열린 ATP컵에는 24개국이 출전했으며 조별 리그를 거쳐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했다.

나달과 상대 전적에서 29승 26패로 앞서게 된 조코비치는 특히 하드코트에서 나달을 압도했다.

최근 하드코트에서 나달과 만나 9연승을 거뒀고 19세트를 연속으로 이겼다. 하드코트에서 나달이 조코비치를 꺾은 것은 2013년 US오픈 결승이 마지막이다.

조코비치는 이날 나달을 몰리치며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우승 가능성을 더욱 부풀렸다.

여자부 환희 속 남자부 아쉬움 접고...V리그 열전 재개

국가대표들 복귀...오늘부터 다시 열전

국가대표 지원을 위해 잠시 휴식한 한국프로배구 V리그가 14일부터 다시 열전을 들어간다.

여자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남자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정규리그를 잠시 중단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대륙 예선에 전념하기 위해 각 구단이 조금씩 양보했다.

잠시 멈췄던 V리그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V리그는 14일 흥국생명(여자부)과 IBK기업은행(여자부)의 경기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과 대한항공(남자부)의 경기를 시작으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3월 18일까지 실제 없이 달린다.

인기 상승 곡선을 긋는 여자부는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쾌거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영, 김해란(이상 흥국생명), 이다영, 양효진(이상 현대건설), 김희진(IBK기업은행), 강소희 등 올림픽 본선행을 이끈 주역들이 V리그에서도 흥행을 책임진다.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 중 부상에 시달리는 이

가 많은 건, 변수가 될 수 있다. 팀당 30경기를 치르는 여자부는 절반인 15경기씩을 소화했다.

현대건설(승점 33), 흥국생명(승점 30), GS칼텍스(승점 28)가 3강 체제를 유지하며 반향점을 올렸다.

V리그 여자부가 더 주목받기 위해서는 KGC인삼공사(승점 16), 한국도로공사(승점 16), IBK기업은행(승점 12)의 약진이 필요하다.

남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이란에 폴세트 접전 끝에 패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V리그 순위 경쟁은 여자부보다 치열하다. 36경기 중 19~20경기를 치른 V리그 남자팀들은 선두권, 중위권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우리카드(승점 39)와 대한항공(승점 36)이 꾸준히 승점을 쌓아 상위권에 자리했고, 한 경기를 덜 치른 현대캐피탈(승점 33)이 다우니 오켈로의 합류 후 무서운 추격전을 펼쳤다.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이상 승점 32)도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20년 동안 올림픽에 나서지 못한 한국 남자배구는 V리그를 통해 대표팀을 이끌 새 얼굴도 찾아야 한다.

“5월 보성 개최 전남도장애인체전 준비 차질없게”

도장애인체육회 경기분야 회의

전남도장애인 체육회가 제28회 보성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5월13~15일) 준비에 나섰다.

13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 보성군, 경기단체 등 체전관계자 40여명은 지난 10일 보성군 북재 북재를 2층에서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분야 회의의 열었다. (사진)

이날 회의는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열렸다. 안건은 개최계획, 참가요강, 경기용 기구 협의 등 현안이었다.

이들은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승인을 위한 체육

시설 답사를 진행했다.

개최지 보성군은 “지난해 제57회 전남체전을 개최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고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이지만 선수단이 최대한 보행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갖추겠다”며 “장애인 눈높이에서 치러지는 감동·화합체전이 되도록 군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은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개최지 보성군과 종목별 경기단체가 힘을 모으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참여형 대회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산행안내

1월15일(수)

▲**뉴일주산악회** 1월15일(수) 경남 남해 설흘산 염주체육관 07:20 광주역 08:00 은병원(말바우시당 앞) 08:10 * 다음카페: 뉴일주산악회 ☎ 010 3605 6884, 010 3646 3450

▲**광주청록산악회** 1월15일(수) 충남 공주 계룡산 산행, 백운로타리아어뱅크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월18일(토) 장흥.강진 수인산(561m).수리봉 정기산행, 봉선동 롯데슈퍼앞 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7:20, 월드컵북문주차장 통배양 7:30, 한국병원앞 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광주호산회** 1월18일(토) 장흥 역불산 말레길,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월19일(일)

▲**광주산이모산악회** 1월 19일(일) 부산 갈매길(2-2구간) 트레킹, 모아레포츠 06:00, 금호지구대 06:05, 무각사 06:10, 시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날레주차장 06:30 * 다음카페:광주산이모산악회 ☎ 010 3603 7718

▲**한길산악회** 1월 19일(일) 전남 고흥 봉래산 산행, 상무정 07:00 무각사 07:10 광주역(e-마트 편의점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각화동농산물공판장 07:40 *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1월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22일(수) 전남 곡성

동약산 산행, 백운로타리아어뱅크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29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29일(수) 경남 남해 화진별곡길 트레킹, 백운로타리아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월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1일(토) 장성/고창,

구항산.추산봉 정기산행, 봉선동 롯데슈퍼 앞 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7:20, 월드컵북문주차장 통배양 7:30, 한국병원앞 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2월2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2월2일(일) 민주지산(충청, 전라, 경상 삼도를 가르는 삼도봉을 거느린 명산) 1241m, 06:40 염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흙플리스 * 다음카페: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공고 제 2020-1 호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 신고 공고

노숙인재활 시설 해남회관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생활인 이 사망하여 장제리를 하고, 유류증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3조, 제10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참조하시어 별첨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망자의 유류품 현황

- 생년월일: 1937.01.05
- 본적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425-7
- 입소연: 주산지: 불상 · 입소일자: 2004.08.18
- 사망일/사망장소: 2020.01.03. 해남우리종합병원
- 유류품: 풍장

나. 공고기간: 2020.01.14. ~ 2020.04.13. (3개월)

다. 구비서류: 효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신고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91번지 해남회관 연화 061) 530-3640 담당자: 김선영

2020. 01. 14.

해남회관원장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닥터 두리틀
2관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3관	천문: 하늘에 묻는다
4관	백두산, 시동
5관	시동
6관	닥터 두리틀
9관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7관	씨네카를 닥터 두리틀, 미드웨이
8관	씨네카를 백두산, 거울왕국 2
	올지마 톤즈 2 : 슈크린 바바
	21 브릿지: 테러 셋다운
	타발루기와 얼음공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2020. 1. 1.(수) ~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2020 신년음악회

2020. 1. 16.(목) 7:30pm
광주문화회관 대극장